

<b>제 목</b>	「해운대 장산」 정상 개방, 민·관·군 협력으로 드디어 시민 품으로				
<b>제도 활용<sup>①</sup> (일자)</b>	기타 적극적 자세 (22. 6. 28.)	<b>분 야<sup>②</sup></b>	기타 분야		
<b>치단체명</b>	부산 해운대구	<b>부서명</b>	늘푸른과	<b>전화번호</b>	051-749-4842

### ① 현황/문제점/필요성

- 장산 정상부는 6. 25 전쟁 이후 군사시설로 활용되어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2011년부터 주민 및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개방 요구 민원 제기되었으나 군사기밀 보안을 이유로 국방부는 개방 불가 결정
- 실제 정상(634m, 군부대 내) 표지석이 아닌 표고 20m 아래의 임시 표지석을 찾는 아쉬움 해소
- 해운대의 중심인 장산의 정기와 자긍심을 주민에게 제공

### ② 조치사항

- 장산구립공원 지정과 연계하여 軍과 개방 협의추진
  - 관련 3개 군 및 국방부와 2020. 7.부터 수차례 실무협의 시작
- 개방 전 이용객 안전시설 및 보안시설 보강 공사 진행(2022. 3.~5.)
- 작고 마모된 표석비 대신 장산의 위용을 담아 새 표석비 설치(2022. 3.)
- 장산 정상 개방 및 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區↔軍, 2022. 6.)

### ③ 결과/효과

- 72년 만에 장산 정상에 시민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 조치
  - 2022. 6. 28.(화) 10시부터
- 이용객의 안전 및 보안 관리를 위한 근로자 상시 배치

### ④ 관련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각 군의 안보 심의

## 참고자료

□ 언론보도사항

○ 연합뉴스,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보도, KNN, MBC, YTN 뉴스방영 등



뉴스 데스크 해운대 장산 정상 70년 만에 완전 개방

부산MBC 뉴스 방영



한국전쟁 이후 통제됐던 장산 완전 개방

KNN 뉴스 방영



홍순현 부산 해운대구청장  
높이 20m를 둘러받는데 7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해운대의 기를 품고 있는 장산 정상입니다.

YTN 뉴스

### 부산일보

2022년 06월 28일 화요일  
002면 종합



28일 완전 개방되는 부산 장산 정상.  
부산 해운대구청 제공

### 해운대 장산 정상 오늘부터 등반 가능

한국전쟁 후 처음으로 개방  
오전 10시부터 매일 5시간씩

부산 해운대구 장산 정상이 28일부터 시민에게 완전히 열린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만에 개방되는 장산 정상에는 하루 다섯 시간 동안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김성현 기자 kshsh@

해운대구청은 28일부터 장산 정상에 매일 오전 10시~오후 3시 5시간씩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홍순현 해운대구청장은 장산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기 위해 2018년부터 국방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가지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 거둔 협의를 결과 지난해 말 해운대구청과 국방부는 정상 완전 개방에 합의했다.

해운대구청은 군사기밀 보안을 위해 정상 표지석 인근에 높이 3m, 너비 26m가량의 가림막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주변 공군 시설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정상 인근에는 간이 화장실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도 만들었다. 앞서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장산 정상 주변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장산 정상인 해발 634m 지점에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등산로 200m 구간에 별도의 나무 데크를 설치했다.

그동안 실제 장산 정상 20m 아래 지점이 정상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정상 출입이 통제된 까닭이다. 정상 구간에 미군 주둔지가 생겼고 이어 국군 부대·경찰·소방 등 9개 기관 무선기지국이 설치돼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홍순현 구청장은 "장산 정상 개방 선포 후 큰 기대감을 안고 기다려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개방에 전폭적으로 협조한 공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관계자들에게 구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국제신문

2022년 06월 28일 화요일  
006면 사회

### 장산 정상 오늘 드디어 시민 품으로

해운대구 70년 만에 개방  
오전 10시~오후 3시 이용

28일 부산 해운대구 장산 정상이 7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운대구는 28일 장산 정상을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지가 생기고 군 통신시설 등이 설치되면서 시설 보안을 위해 현재까지 민간 출입이 통제돼 왔다. 구는 장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협의를 끝내고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한다.

구는 지난 1월 1일 정상 개방을 선포

했다. 지난 3월 정상에 구와 우호교류도시인 경기도가평군이 기증한 돌로 새 표지석을 설치했고 이어 정상 출입로 울타리 CCTV 등 안전시설과 의자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다. 구는 그동안 군사 보안 기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숙원인 장산 정상 개방을 위해 여러 차례 군부대 측과 실무협의를 가졌고 협의를 마무리했다.

장산 정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객의 안전과 군사시설 보안 내내를 위해 안전관리원이 개방 시간 상주한다. 장산 정상이 군사시설 내부인 만큼 사진촬영 등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진홍 기자



'완전 개방' 앞둔 장산, 새 표지석 설치

KNN 뉴스